



[부동산] 디에이치 자이 개포 시세차익 4억원 '로또아파트' 08



Life

[잡·에듀] 4차산업혁명이 바꾼 '채용 풍속도' L4



洞 단위 맞춤형 정비... 강남북 균형·자족성 강화 유도

2030 서울생활권계획 본격가동

5개 권역·116개 지역 세분화해 지역간 균형 맞춘 발전 이룰 것

서울 서북권이 디지털미디어 거점으로, 신촌 일대는 청년창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자치구별로 부족한 어린이집과 도서관도 늘어난다.

서울시가 시 전역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해 수립한 균형발전 전략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8일 본격 가동한다. 지난 2014년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한지 4년만의 결과물이다. 서울플랜이 서울을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으로 나눈 광역계획이라면 생활권계획은 3~5개 동을 하나로 묶은 동네단위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민, 전문가와 함께 만들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서울시는 압축성장을 통해 성장했지만,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병원 수와 문화 시설, 상주 인구 대비 유동 인구 등으로 보면, 동북권이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며 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생활권계획에는 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권 등 5개 권역과 3~5개 행정동 단위로 나뉜 116개 지역 생활권의 목표 49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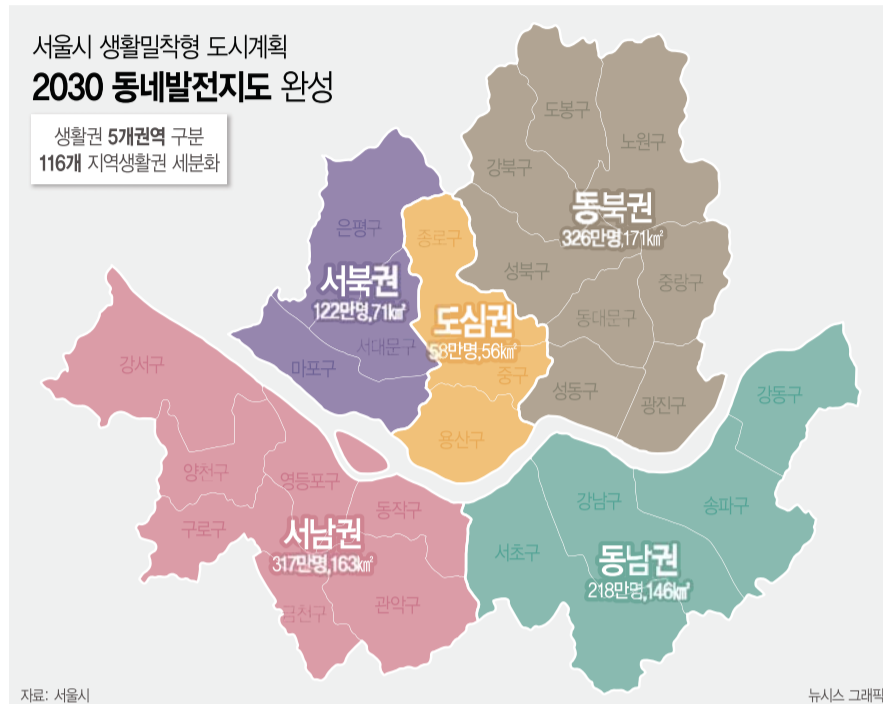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범중 기자

를 달성하기 위한 1126개 실천전략이 담겼다. 시는 이번 계획으로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도시관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권역·지역 발전방안을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 등 7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도시공간에 대해 권역·지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자족성 강화를 추진한다. 상암과 수색 등 서북권은 수색복합역사와 경의선 상부부지를 활용해 영상·미디어·R&D(연구개발) 기능을 확충해 디지털미디어 거점으로 육성한다. 동북권인 청량리역은 복합환승역사를 통해 교통·산업 중심지 기능이 강화된다.

특성화 산업을 발굴·육성해 고용과 경제기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서남권인 가산·G밸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형 산업과 패션·디자인,



제조업 기반의 창조산업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 식이다. 서북권인 신촌 일대는 대학과 연계된 청년창업 거점 기능이 강화된다. 동남권인 상일동 일대는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규모가 확대된다.

시는 주거지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보전·관리방안도 제시했다. 동북권인 상계·월계동은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진행된다. 서북권인 불광동·흥은동·성산동 일대에는 1인가구와 어르신 등 맞춤형 공유주택

도입을 유도한다. 각 생활권별 보행환경 개선과 공간 확보, 자전거도로와 이용시설 확충, 주요간선도로로 확충한다.

자연환경 보전과 공원·녹지 확대, 방재 대책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동북권인 아차산~용마산~망우산을 연결하는 서울둘레길을 정비하고, 한강~중랑천~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축을 연결해 '산-하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역사·문화·자연의 보전·활용방안과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도심권

은 한양역사도심을 활용해 도보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남권은 풍납토성~암사동 유적~아차산성을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역별로 복지·교육시설도 공급한다. 시는 1~2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심권인 혜화동·장충동에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시는 각 권역·지역별로 설치할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도 어린이집과 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11개 분야로 제시했다. 권역생활권은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 평균 보급률보다 낮은 시설이 기준이다. 지역생활권의 경우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보행 10분 거리, 800m 이내 시설이 없는 경우 ▲서울시 평균보다 보급률이 낮은 시설 등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을 각각 우선 확충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역별 인구와 일자리, 상업지역 비율 등을 고려해 유보물량을 제외한 배분 물량(134만㎡)의 70% 이상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됐던 동북권(59만㎡)과 서남권(40만㎡)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서이번 계획에 참여한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구·기반시설이 중요했던 개발시대와 달리, 저성장 시대이면서 대단히 성숙한 도시에서는 지역중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목표인데, 이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동남아권 관광통역사 70명 늘린다

서울시는 동남아권 관광객 수요에 맞춰 동남아권 관광통역안내사 7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한국을 방문한 동남아 관광객은 360만명으로 전체 방문관광객의 27.1%를 차지했다. 그러나 관광통역안내사 신규 자격취득자 중 동남아 언어권 취득자는 8%(133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동남아권 관광객의 수요를 맞춰 그동안 부족했던 관광통역안내사의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동남아권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신규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총 70명의 통역사를 추가로 양성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동남아 관광객들.

모집 분야와 인원은 ▲태국어 20명, ▲베트남어 20명,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 30명이다. 신청일은 2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을 통해 선발된 최종 교육 대상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언어, 필기시험, 면접 교육을 받은 후 정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서울시가 직접 동남아 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고, 기존 관광통역안내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역사와 문화, 관광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서울형 관광통역안내사가 배출될 것"이라며,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지원을 통해 관광시장 다변화에 대비한 서울 관광안내체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다채로운 리빙 콘텐츠가 한자리에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생활용품 전시회인 '2018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주방용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쓰레기 반입관리제로 하루 200톤 줄여

영등포구 3년 전보다 20% 이상 줄여

서울시가 '공공폐기물처리시설반입량관리제'를 추진해 하루 201t의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2014년 하루 평균 3088t이었던 쓰레기 매립·소각량을 지난해 2887t으로 6.5% 줄였다고 7일 발표했다.

반입량관리제는 자치구별로 감량 목표를 부여해 목표를 달성하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에는 영등포구가 쓰레기 매립·소각량을 2014년 대비 20% 이상 줄여 1위를 차지했다. 용산구도 2016년 대

비 가장 우수한 9.9%의 감량 성과를 냈다.

이에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소각량 감량 목표를 달성한 영등포구와 용산구 등 9개 자치구에 9700만원~3억7700만원의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12%, 2020년에는 20%의 생활쓰레기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째로 매립하는 직매립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억제, 무단투기 단속, 재활용품 혼합배출 단속,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시민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 축구 역사 담은 '서울의 축구' 발간

일제강점기 축구장은 식민지의 설움을 쏟아낸 경성-평양 축구대항전인 일명 '경평전(京平戰)'은 1929년 10월 8일 처음 개최됐다. # 국내에서 처음 축구 경기를 한 사람은 1882년 인천 제물포로 입항한 영국의 '플라잉 피시' 호 선원이다.

서울역사편찬원은 개항 이후 오늘날까지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서 축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쉽고 재밌게

서술한 '서울의 축구'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스포츠 평론가인 정운수 성공회대 교수가 저술한 '서울의 축구'는 ①서울, 축구의 기원 ②일제강점기 서울의 축구문화 ③서울의 학원 축구 ④서울의 실업축구 ⑤서울의 프로축구 ⑥서울 축구, 그 장소성의 의미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은 서울 축구의 기원과 의미, 일제강점기 학원 축구의 강자들, 실업·프로축구

와 서울의 여성축구단, FC서울의 시작과 라이벌들, 2002년 한일월드컵의 역사적 장소인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광장문화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서울의 축구'는 서울시 내 각 도서관과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시민청 서울책방에서 구매도 가능하다.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익숙하고 가볍게만 느껴왔던 축구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축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쉽고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